

손흥민 선수 있기 전 일장기 가리고 고개 숙인 선수가 있었다

나성영학교 광복 주일 설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시상식
일장기 가리고 고개 숙였으나
50년 후 백발 되어 성화 봉송

지난 주일인 10일 나성영학교는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에 담긴 의미를 이사야 40장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와 연결해 묵상했다.

박은성 목사는 최근 미국 로스 앤젤레스FC 팀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상황을 언급하며 교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한 주는 LA가 한국 선수 한 명으로 들썩거렸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 팀에서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 팀으로 이적한 것이다. LA 시장도 나와서 시민증을 전달하고 스포츠 선수들 관계자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환영하고 축하했다.”

그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2026년 열릴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잘 적응해 국가를 위해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찬호, 박세리, 류현진 등 한국 선수들의 활약 역시 조국의 위신을 높여 려는 동기가 바탕이 되었다며,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베를린 올림픽 시상식에서 손에 든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다.

그는 “한반도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 세상적인 힘, 미국의 혁폭탄, 외교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 80년 전에, 같은 성씨인 밀양 손씨로 평안도에서 태어난 분이 계신다.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잘했고, 중학교 때 육상선수가 되었다. 청년 시절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는데, 나가는 경기마다 우승했다.”

“1936년 8월 9일, 90년 전 어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나섰다. 인간의 한계로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2시간 3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29분으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다. 비결을 물었더니, ‘독립군들이 바지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 대표선수로 나가 시상대에 올랐지만,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 월계수를 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사진에 찍혔고,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 그 일로 두 신문은 강제로 폐간됐고 손기정 선수도 심문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

“그로부터 50년 후, 백발이 된 손기정 선수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성화를 들고 달렸다.”

그는 “한반도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 세상적인 힘, 미국의 혁폭탄, 외교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고 해석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백성을 향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수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하나님

의 위로자”로 살아가셨다며, ‘위로자’로 살았던 한 의사의 삶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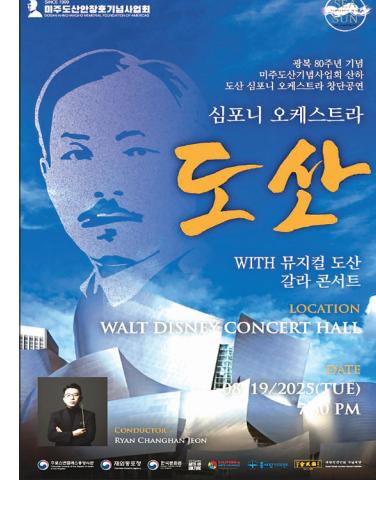
“그의 집안은 유복했지만, 주변 이웃들이 가난했다. 어머니가, ‘네가 먹을 것을 나누면 하나님은 너를 더 채워 주신다’고 하셨다.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도시락을 항상 친구들과 나누었다. 이 아이는 성경을 읽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의사의 수제자로 들어갔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시상식에서 손기정 선수가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다. © Film Rescue Youtube

광복 80주년 기념
뮤지컬 도산 콘서트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창작 뮤지컬 <도산>의 갈라 콘서트가 오는 8월 19일(화) 저녁 7시 30분,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LA한국문화원, 미주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사상을 담은 창작 뮤지컬 <도산>의 주요 장면들을 음악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나레이션과 함께 도산의 정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55인으로 구성된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으로서 더욱 뜻깊으며, 도산 역에는 테너 최원현, 이토 히로부미 역에는 바리톤 김경태가 출연한다. 대표곡인 ‘우뚝서리라 도산’,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기’, ‘거국기’ 등과 한국의 가곡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등을 선사하게 된다.

일시: 8월 19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티켓 구입: www.dosanusa.com/

미 병원들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중단

지난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미국 전역의 주요 병원들이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수술 등을 “화학적·외과적 훼손”으로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는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트럼프는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을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트럼프는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학생 신문인 데일리 펜실베이니안(Daily Pennsylvanian)은 지난 5월 29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의과대학이 더 이상 성별 위화감을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변형 성전환 시술을 시행하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의 최고 의료 책임자이자 수석 부사장인 패트릭 브레넌 박사는 데일리 펜실베이니안에 보낸 성명에서 “정책 변경은 우리 치료 팀을 신뢰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강혜진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텍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마동환 변호사 그룹

www.marhaw.com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변호사 / 마동환 변호사 그룹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접수리 일체

K-Urban Builders 213-310-1800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전축의 달인파 지금 상담해 보세요”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라크마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Spirit of Korea 성료

광복 80주년, 선교 140주년
독립투사의 삶, 창작 서사시
헨리 아펜젤러의 후손 초청

캘리포니아 음악인들로 구성된 음

악단체인 라크마(LAKMA, 단장 최
승호 박사,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가 지난 2일(토) 오후 7시 월트디즈
니홀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한
국의 정신〉이란 주제로 콘서트를 개
최했다.

5명의 독립투사를 기리는 곡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백나금 작
곡가의 창작 대서사시 〈내 백성을 보

내주오(Let My People Go)〉로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에 앞서 진행된 기자
회견을 통해, 백나금 작곡가는 각 독
립운동가들의 삶, 고난의 장면을 한
국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표
현해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각 곡들

은 각 인물들의 사건과 상
황을 따라가며, 그들이 경
험했을 격렬한 정서들을

서양 음악과 한국 전통악

기를 통해 전달했다.

소프라노 최윤정과 테
너 오정록이 〈태동, 김구〉,
비리톤 백승현이 〈의거, 안
중근〉, 메조 소프라노 신하
영이 〈순국, 유관순〉, 라크
마코랄이 〈평화, 안창호〉,

소리꾼 전인권이 〈저항, 윤
동주〉를 부르고 합창으로 〈자
유〉를 노래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최초
의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배재학당 설립자의 아펜젤러의 5
대손 앤드류 쉐필드와 케이트 쉐필
드가 초청되어 축하의 메시지를 전
했다. 앤드류 쉐필드는 “아펜젤러 가



라크마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Spirit of Korea'가 최근 개최됐다. ©LAKMA 제공

문의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와 깊이
얽혀 있다”며, 헨리 도지 아펜젤러
(Henry Dodge Appenzeller)가 3.1
운동에 참여한 그의 제자들이 체포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거부함

으로 교장직을 박탈당했던 사건을
회고했다.

케이트 쉐필드는 “그들은 제국주
의와 억압에 맞서 싸웠다. 헨리 거하
드, 헨리 도지, 그리고 할머니 캐롤이

일본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남긴 흔
적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라크마
가 이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무대는 연합을 주제로, 번
스타인의 “Make Our Garden Grow”
와 “Arirang & Amazing Grace”(김
경희 편곡)를 연주하고, 바리톤 패트
릭 블랙웰(Patrick Blackwell), 소프
라노 김시연 및 7인 다민족 앙상블이
무대를 이끌었다. 세 번째 무대는 일
제강점기에 창작된 가곡을 통해 민
족의 애환을 전달했다.

독립 · 자유 · 평화 · 연합

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순서
로 라크마코랄, 영엔젤스 케이트, 페
스티벌콰이어가 함께 ‘한국 환상곡
(Korea Fantasy)’을 부르고, 모든 출연
진과 관객이 함께 애국가를 합창해 장
엄한 경험을 선사했다. 주디 한 기자

8.15 한반도를 위한 기도 행사

16일(토) 2시 바이올라 대학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6일(토) 바이올라대학에서
‘8.15 Pray It Forward’
한반도를 위한 기도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며, 다큐멘터리 영화 ‘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가 상영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탈북 여정을 담은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1,000명 이상의 탈
북자를 구출한 갤럽 선교회 김승은 목사를 중심으로 전
행된다. 이어서 팀 창 교수(리버티 대학 Global Studies)의 기독교 역사 강의, 북
한 인권 문제 토론, 태권도 시범(5시 15분) 등이 이어진다.

저녁 7시에는 랩퍼 BewhY(비
와이) 콘서트가 열린다. 비와이는
작년 8월 남가주에서 열린 콘서
트 Movement IX에서, 그의 신앙
을 고백하기도 했다. 티켓은 유니



한반도를 위한 기도행사 '815 Pray It Forward'가 오는 16일(토) 바이올라 대학에서 개최된다. ©Unifykorea

파이 코리아 웹사이트(www.unifykorea.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행사를 기획한 Unify Korean Prayer Movement의 팀 창 교수는 한인 15세로,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의학박사가 된다. 이 장기려 박사에게 일제가 좋은 자리들이 제공했지만,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하는 사역

을 한다. 어느날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결인이 구걸을 해서 자가 받은 강사비를 그대로 전해줬다. 결인이 보니,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어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표를 찾아가라고 장

기려 박사에게 연락이 왔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찾아서 한푼도 남김 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줘야 된다. 그 돈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박은성 목사는 이 한 사람을 통

해, “그의 자손들, 그의 가정, 교회와 학교, 전 사회와 전 국가에 그를 잊는 숭고한 치유자들과 위대한 위로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다”며, “주님이 위로자로 사셨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짓고 아파할 수 있는 위로의 공동

체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하며 광복 주일 설교를 마무리지었다.

8월 17일 오후 5시 광복절 찬양제

한편, 오는 8월 17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샘신 회장)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 찬양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광복 80 주년 8·15 기념 감사예배 및 행사 안내

“지난 80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유와 평화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소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남가주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금)

『광복절 기념 감사기도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시간: 오후 7시 30분

8월 16일(토)

『2세대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

장소: 바이올라 대학교

시간: 오전 10시~저녁까지 (2세대 중심 예배와 콘서트)

8월 17일(일)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예배 및 찬양제』

장소: 나성영락교회 시간: 오후 5시

8월 19일(화)

특별 뮤지컬『도산』공연

장소: LA 디즈니 콘서트홀

시간: 오후 7시 30분



샘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5대 회장



이창남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교협, OC교협 연합 광복 80주년 행사

8/15~17, 19, 은혜한인 바이올라 나성영락교회, 디즈니 콘서트홀

광복절인 15일(금)부터 19일(화) 까지 LA와 OC에서 광복절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 15일(금) 오후 7시 30분

광복절 기념 감사기도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 16일(토) 오전 10시-저녁

2세대와 함께, 워십 콘서트

장소: 바이올라 대학교

▶ 17일(주) 오후 5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 및 찬양제

장소: 나성영락교회/오후 5시

▶ 19일(화) 7시 30분

뮤지컬 '도산' 갈라 콘서트

장소: LA 다운타운 디즈니 콘서트 홀

한편, 광복절을 앞두고, 8.15 광복 80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8월 9일(토)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부에나파크 소스몰 1층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한성준)가

주최 및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창남 목사), OC목사회(회장 강문수 목사), OC여성목사회(고문 이선자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 장로)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 재향군인회 미남서부지회(회장 박광정), 예비역기독군인회 미남서부지회(회장 김현석 목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과 타민족들에게 대한민국의 광복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로 기획했다. 실제로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풍물패와 난타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에 참여했으며, 타민족들도 한국의 풍물놀이와 가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샌디에이고 풍물학교, 미주 고르예술단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팀들과 목사모 합창단, 무궁화합창단, 뮤지컬 도산 팀의 남성 퀸텟,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지경 교수, 테너 박경철 목사 등이 참여했다.



8.15 광복 80주년 기념 페스티벌 행사가 8월 9일(토) 소스몰 1층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 전원이 만세 삼창을 하며 행사를 장식했다. ©OC교협 제공

오후 3시 40분, 풍물패가 태극기와 단체기를 앞세운 참가팀과 함께 1층 광장을 행진하며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서, 연합회 김도영 이사장의 개회사 후 뮤지컬 '도산'팀의 남성 퀸텟이 민족의 열과 기상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다.

OC교협회장 이창남 목사가 기도하고, 남가주교협 샘신 목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8:32, 고후

3:17)라는 제목으로 자유의 소중함과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했다.

테너 박경철 목사의 You Raise Me Up, 테너 오위영 목사와 소프라노 지경 교수의 듀엣 희망의 나라로, 무궁화합창단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과 손에 손잡고 공연이 이어졌다.

모든 출연자와 행사 관계자들이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친 뒤, 광복절

노래와 애국가를 합창하며 행사의 절정을 장식했다. OC교협 이사장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최석호 주 상원의원,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영김 연방 하원의원과 친한인 정치인 퀸텟 실바 주 하원의원은 감사장을 통해 함께했다. 이외에도 공동주최 단체장을 비롯해 OC교협 이사장 민경엽 목사, 크리스천헤럴드 대표 이성우 목사, 월남참전전우회 김기대 회장, OC충청향우회 민김 회장, 김유배 교수 ('내 삶의 기록 운동' 대표), 이영미 교수(전 유엔 자문위원) 등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인사들이 자리 함께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0월 제6차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0월 12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며, 연합회는 그동안 5차에 걸쳐 267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총 13만 3,5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조셉 리 기자

네러티브 설교 세미나 “말씀은 존재, 삶의 아주 깊은 곳에 닿아 있어”

달라스신학교 한인 동문회 주최

LA 동부장로교회서 네러티브

강해설교 세미나

8월 4일(월), LA 동부장로교회에서 달라스신학교 한인 동문회(DTS Korean-American Alumni Association) 주최로 '네러티브 강해설교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로는 달라스 신학교 티모시 롤스턴 교수(Dr. Timothy Ralston, 목회학 교수)와 티모시 워렌 교수(Dr. Timothy Warren, 명예교수)가 나섰다.

유리창 VS 스테인드 글라스

롤스턴 교수는 이야기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창이 아닌, 선택적 정보를 담아낸 스테인드 글라스라며, 이야기에 담긴 정보들은 저자의 의도된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성경은 수작업 필사로 기록되었기에,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사적 직감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자는 이야기의 관습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을 길러야 한다. 마치 영화를 반복해서 보며 이전엔 놓쳤

던 디테일을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도 반복해서 읽을 때 새롭게 보이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의 해석을 바꿀 수 있다.”

왜 진리를 ‘이야기’로 전달하셨는가

롤스턴 교수는 하나님께서 추상적 명제나 규범이 아닌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진리를 전달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야기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이며, 우리를 사로잡는다. 영화의 결말에서 눈물이 흐르듯, 이야기는 폭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떤 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온전히 전달된다. 이야기를 통한 진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닿아 삶을 변화시킨다.”

이후 강의에서 워렌 교수는, “성경 내러티브는 특별한 영적 해석법이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비한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려는 경향보다,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단서와 단순한 세부사항을 구분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8월 4일(월), 동부장로교회에서 '네러티브 강해설교 세미나' 달라스신학교 한인 동문회가 주최로 개최됐다. 티모시 워렌 교수(좌)와 티모시 롤스턴 교수(우). ©동부장로교회

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의도된 표현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밤에’ 다메섹을 탈출한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라는 것이다.

그는 “복음서 간의 세부사항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각 복음서 고유의 메시지를 흐릴 수 있다”며, “설교자는 본문 자체와 저자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경 내러티브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상

적인 세계를 그려낸 메시지다. 설교자는 그 이야기의 구조와 신학적 해석을 파악하여, 청중이 감정적으로 몰입하면서도 신학적 진리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워렌 교수는 이야기 해석 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장면과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 수사적 구조, 내레이터, 선택과 목적을 제시하며, 특히 ‘내레이터의 선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깊이 있는 본문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이날 네 차례의 강연이 있었으며, 네 번째 강의 후 30분 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져, 성경 본문 해석과 관

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됐다. 본문의 은유와 역사적 사실의 구분

한 참석자의 ‘역사적 사실과 은유적인 표현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 워렌 교수는, “본문의 이면을 파고 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는 유혹이 있다.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도 좋다.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저자가 기록한 의도성과 실제 사건과의 고리를 들어낼 수 있다. 사건 자체는 영감을 받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제안 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 중에는 달라스신학교 행정책임자인 그雷 헤터버그(Greg Hatterburg)가 DTS의 사명과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DTS는 1924년 루이스 스퍼리 체이퍼(Lewis Sperry Chafer)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한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모든 학생은 성경 66권 전체를 주제 또는 강해 중심으로 배우며, 목회학, 교육학, 철학박사(PhD) 등 4개 박사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디 한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랑하는
마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컬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선교는, 모든 문화권, 사람들에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



마성대 MiCA 세미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마성대학교,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미나가 오는 8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애너하임 미주복음방송 공개 훌(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출간된 이상훈 박사의 신간 『리바이브 처치: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일상의 선교사'로 세우는 원리와 사역 방안을 제시한다.

메인 스피커로 나서는 이상훈 박사는 마성대 총장이자 MiCA 대표로, 이번 강연에서 일상과 선교를 잇는 목회적 접근, 성도의 실천 공동체 형성, 미주 한인 교회의 도전과 미래 전략을 다룬다.

또한 Ministry Insights 세션에는 고현종 목사, 송병주 목사, 우영화 목사, 이정엽 목사가 참여해 미국과 한국의 실제 교회 사례를 바탕으로 선교적 목회 실행 방법을 나눈다.

세미나 대상은 목회자와 각 교회의 선교 리더로, 선착순 40명까지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에게는 접수 식사와 함께 이상훈 총장의 신간 도서가 증정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AEU(323-643-0301) 또는 미주복음방송 GBC(714-484-1190)로 하면 된다.

조셉 리 기자

충현선교교회 40주년 기념예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8월 10일 주일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에 대해 선포했다.

이날 설교에 앞서 40주년 영상에서는 제1대 정상우 목사로부터 제3대 담임 목사인 국윤권 목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과 각 시대별 비전을 돌아보았다.

충현선교교회는 40년 전인 1985년 8월 11일 정상우 목사(제1대 담임 1985-2002) 자택에서 시작되었다.

"안정된 예배 처소를 찾아 나섰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정상우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구절을 보게 되셨다.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단계가 아니구나'라는 믿음으로 재도전하셨고, 결국 부속 건물은 쓰지 않고 채플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2년 만에 본당 예배가 가능해졌다."

제2대 민종기 목사 시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양육해 세상에 선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맞선다"라는 비전을 품었다. 급격한 부흥에 따라 교회는 에덴 헬스트 애비뉴로 이전했고, 2008년 본당 건축을 시작해 2010년 부활주일에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국윤권 목사는 누가복음 5장 37~39절을 본문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택 예배 중 받은 복된 장마비 비전 받아



2025 너는 내게 복로 찾으라

8월 10일 주일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에 대해 선포했다. ©유튜브 스크린 샷

충현의 40년, 자택 예배에서 받은 복된 장마비 비전

눈물의 장마비 너머, 자녀 세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국 목사는 창립 초기, 고(故) 정상우 목사님이 받은 비전에 대해 언급했다.

"정상우 목사님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된 장마비'라는 놀라운 비전을 말씀을 주셨다. 그때는 정상우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 장소가 장마비로 쏟아졌다. 그 복된 장마비의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은 이제 우리를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흘러가고 있다."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것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변화는 죽기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충현선교교회는 변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충현의 예배, 선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사명 때문이다."

오래된 포도주가 지닌 풍미

그는 오래된 포도주의 속성과 관련해, 복음·전통·한국교회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래된 포도주가 비싼가, 새 포도주가 비싼가? 오래된 포도주가 더 가치가 나간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주의 습성을 따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복음이 숙성되면 포도주 같이 깊이가 생기고 풍미가 더 해진다. 충현은 그런 깊은 풍미가 있는 교회이다. 복음의 깊은 맛은 단 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연단과 오랜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만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을 보며 하나님을 배웠다. 교회 어른들을 통해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다. 이런 교회의 맛,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면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저는 교회를 통해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것을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오래된 포도주에 대비되는 새 포도주의 속성을 설명

하며, 왜 교회가 변화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신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가스가 나와서 부피가 팽창된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 새 포도주를 넣으면 팽창력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 가죽 부대는 찢어지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만다."

이어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란 낡은 부대는 예수님이 담아내기에는 부적합했다고 말했다.

"전통 안에 담긴 가치는 마치 묵은 포도주 같다. 그 안에 깊은 풍미와 맛이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유대인의 전통은 낡은 부대가 되어 예수님도 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 가지이다. 새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낡은 부대가 된다. 원래 문화는 라틴어로 땅을 가꾼다는 말 'cultura'라는 말에서 나왔다. 문화는 원래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교'의 의미를 '모든 문화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가꾸며 변화해야 한다. 선교는, 모든 문화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편, 이 교회는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설립 40주년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美 병원들...〉에 이어

서

워싱턴 D.C.의 국립아동병원은 기준 및 신규 환자를 위한 메시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및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 확인 약물 처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 변경은 오는 8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미국 최대 건강 보험 제공업체 중 하나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대변인은 "행정 명령에 따라 내외 의학 전문가들과 논의 후, 8월 29일부터 19세 미만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성전환 수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카고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연

방 조치에 대응해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이성 호르몬 처방, 신체 절단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일 뉴헤이븐 헬스, 스탠포드 메

디슨, 시카고 류리 어린이병원,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 등 다수의 병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일부 병원은 기존 치료를 받던 환자에 대해 제한적 치료를 유지하고,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중단했다.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Blue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Frank Kim Sean Kim Jae Lee

714.331.3855 714.914.8414 213.999.3935 213.276.8959 213.839.1378 949.433.0682 323.623.0682 714.319.4611

1-888-644-7114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핫한 여름 쿨한 세일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한인 메

© 센터메디컬그룹

1945년 그날의 외침

광복절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센터메디컬그룹이 이어갑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마약, 인간 의지로는 못끊어… 오직 은혜로만”

[인터뷰]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동욱 집사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목사) 사무국장 이동욱 집사는 한 때 마약중독자였다가 성경 속 인물인 유헤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환상 체험으로 마약중독을 극복했다고 한다.

2016년 그는 마약중독을 끊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9년째 단약

2023년 설립된 이 단체는 마약중독 등 중독자들의 회복을 돋는 단체다. 또 현재 분당샘물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술, 담배, 도박 등 중독에 시달렸다가 대학 후배의 유혹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혜가 없어 거절하지 못했다. ‘한 번 해보고 중간

약은 절대 끊지 못하겠더라. 아들 친구들 부모들이 ‘쟤 아빠 마약중독자다. 그 집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큰 고통이 뒤파왔다. 마약중독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마약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끊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

-마약중독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게 된 계기?

“마약중독을 극복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중독에서 해방됐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마약을 끊기 위해 인간적 노력을 해봤다.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거나 배드민턴 동호회 등 취미생활도 해봤다. 그래도 약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지 않았다. 인간적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어 자살 기도를 4번이나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자살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2016년 당시 70~80

명 분의 마약을 투약했다가 1주일

간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데 당시

환상 중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 내

가서 있던 모습이 보였다. 음기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그러더니 사탄이 내가 지난날 죄악을 저질렀던 장면들을 보여줬다. 그걸 보더니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할 말을 해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평생 울었다.

이후 환상에서 깨어나 8개월간

계속 몸이 안 좋았다. 시름시름 앓

다가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도심

지를 걷는데 마약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국회에서 열린 한 마약중독대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에게 ‘내가 왜 마약을 안 하게 됐는지’를 묻고 싶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참석했던 한 목회자가 내게 이유를 알려줬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라고 말해준 것이다. 저는 기독교

인들을 욕하고 비난했던 무신론자

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필부자

의 인생을 살았다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

님은 내게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등

신앙생활을 권유했다. 그렇게 분당

샘물교회로 연결돼 현재 출석하고

있다.”

-신앙으로 마약중독을 극복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

혜를 구하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마약 투약 등 죄

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둘째,

NA(Narcotic Anonymous, 자조

모임)에 참석하라. 자조모임은 1

단계에서 12단계까지 이어지며,

자신이 마약중독자이며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한

힘(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

는 고백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통

해 회복하자는 취지다.”

-신앙을 통해 마약중독에서 해방되고 싶으나 계속 넘어지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유다와 베드로가 있다. 왜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사도가 됐을까. 베드로나 유다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차이는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도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이 없었다. 생명이 자기에게 있고 죽음 이후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결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사람이 죄로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 등 죄악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요한복음 8장 11절)도 우리에게 있다. 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아들이 제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다녀서 가기가 좀 그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아냐,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려 오는 이들이 다니는 곳이야’라고 말해줬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마약 등 중독을 이길 원동력을 주실 것이라고 본다.”

노형구 기자



이동욱 집사와의 인터뷰 모습. ©백선영 기자

중이다. 이 집사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마약중독 극복기를 전하고 있다. 이 집사는 “마약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끊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중독 등 죄악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집사와의 일문일답.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에 그만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약을 투여했다.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자마자 ‘내 인생이 꾀이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마약투여로 수감생활을 총 6번이나 했다. 멈추고 싶다는 의지와 달리 마약을 끊을 수 없었다.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다. 부모님께 계속 상처를 드렸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쳐도 무

시했다. 마약 구하기에만 매몰됐다. 술, 담배 심지어 도박도 내 인간적 힘으로 끊어봤다. 그런데도 마

약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약을 투여했다.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자마자 ‘내 인생이 꾀이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마약투여로 수감생활을 총 6번이나 했다. 멈추고 싶다는 의지와 달리 마약을 끊을 수 없었다.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다. 부모님께 계속 상처를 드렸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쳐도 무

시했다. 마약 구하기에만 매몰됐다. 술, 담배 심지어 도박도 내 인간적 힘으로 끊어봤다. 그런데도 마

약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약을 투여했다.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자마자 ‘내 인생이 꾀이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마약투여로 수감생활을 총 6번이나 했다. 멈추고 싶다는 의지와 달리 마약을 끊을 수 없었다.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다. 부모님께 계속 상처를 드렸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쳐도 무

시했다. 마약 구하기에만 매몰됐다. 술, 담배 심지어 도박도 내 인간적 힘으로 끊어봤다. 그런데도 마

약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약을 투여했다.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자마자 ‘내 인생이 꾀이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마약투여로 수감생활을 총 6번이나 했다. 멈추고 싶다는 의지와 달리 마약을 끊을 수 없었다.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다. 부모님께 계속 상처를 드렸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쳐도 무

시했다. 마약 구하기에만 매몰됐다. 술, 담배 심지어 도박도 내 인간적 힘으로 끊어봤다. 그런데도 마

한교총, 광복 80주년 기념예배 “사죄와 복음으로 미래 열어가야”

일본복음동맹 대표 “침략과 신사참배 강요 사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3일 오후 7시 30분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이 예배에는 특별히 일본기독교계 대표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안성우 목사(기성 종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종회장)는 설교를 통해 “광복 이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허락하셨다”며 “십자가가 다시 높이 들릴 때 민족은 하나가 되고, 분단의 장벽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사를 전한 공동대표회장 이음 목사(기침 종회장)는 “1945년 8월 15일, 어둠에 덮인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임했다”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 선배들의 희생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신앙 실천”

을 다짐했다. 이규환 목사(예장 백석 종회장)는 축도를 맡았으며, 참석한 각 교단 종회장과 종무들이 특별기도와 ‘우리의 다짐’ 발표 등을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믿음의 선진들이 꿈꿔온 나라를 되새겨 본다”며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국민이 참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 혼신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을 깨우며 일하리라”고 다짐하는 새벽총

리로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복음동맹 대표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는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를 침략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죄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한다. 과거의 죄를 다음세대에 알리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교총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답사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일본복음동맹의 사

죄를 바탕으로 양국 교회가 다음세대 복음화와 평화·공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과거의 상흔을 덮고 평화의 복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공동종무 김종명 목사(예장백석 사무총장)와 문창국 목사(기침 종무)가 낭독한 ‘우리의 다짐’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치유와 항구적 평화, 통합과 희망의 정치, 복음적 간증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 힘쓸 것을 결의했다.

송경호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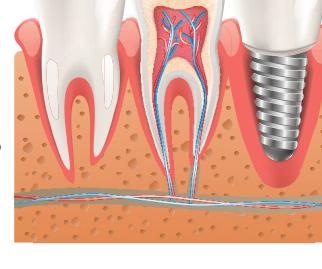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조혜련 집사와 브라이언 김 초청 찬양 콘서트. ©Loving Worship

LOVING WORSHIP 찬양 콘서트 익투스

올해 '새롭게 하소서' 팀과 <주의 거룩한 자> 콘서트를 열었던 러빙워십(Loving Worship, 대표 조셉 리 목사)이 오는 10월 조혜련 집사와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김을 초청해 LA에 찬양과 연극을 통해 LA 교민들을 찾아간다.

찬양콘서트는 <익투스>(IXΘΥΣ)라는 주제로 10월 4일, 5일, 10일에 새새명비전교회, 감사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조셉리 목사가 강사로 선다.

조혜련 집사가 출연하는 연극 <사랑해 엄마>는 10월 12일(주일) 오후 7시, 13일(월) 오후 2시, 7시에 다우니극장(downeytheatre.com)에서 상연된다. 김민선 기자

익투스 콘서트 일정

10/4 (토) 6:30 생생명 비전교회

10/5 (주일) 7:30 감사한인교회

10/10 (금) 7:30 나성영락교회

연극 사랑해 엄마

10/12 (주일) 7시

10/13 (월) 2시, 7시

세상의 방정식 vs 하나님의 방정식

신성욱 교수,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웨스트힐 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개학을 앞두고, 8월 10일 주일예배에서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에서 신성욱 교수(아신대학교 설교학)는 '하나님의 방정식'(창세기 22:1-5)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말씀 속 '아노라'는 히브

리어 '야다'로, 이는 부부만이 아는 친밀한 관계처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 합격을 미리 아셨지만, 그 순간 실제로 체험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상의 산술과 하나님의 방정식을 대비하며, "하나님만이 내 전부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1-1=0, 하나님의 방정식

1-1 = 더 큰 승리

"세상의 산술은 1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정식은 전혀 다르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제로가 아니라 '큰 승리'로 회복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옮인할 때, 우리도 손해 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순종을 통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분모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전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그 데드



LA 북부한인회 박승목 회장(앞줄 오른쪽)이 한미노인회 미국 총연합회 조광세 총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북부한인회 제공

Social and Public Services)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주일예배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독일보

라인까지만 기다리면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비록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

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아끼 없이 받아 누리길 축원한다."

김민선 기자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방글라데시, 정치 혼란 속 기독교인들 위기...신앙 포기 협박 증가



방글라데시 시내 모습 ©Unsplash/Niloy Biswas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 공동체는 신앙 포기 강요와 물리적 폭력에 노출돼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픈도어(Open Doors)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100가구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으며, 36건 이상의 폭력과 재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힌두교, 불교,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역시 유사한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도어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퇴임 이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기독교인과 같은 소수종교 공동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힌두-불교-기독교 연합협의회(Bangladesh Hindu Buddhist Christian Unity Council)는 2024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수천 건의 폭력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방화, 성폭력, 살인, 강제 이주, 재산 몰수 등 다수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포함돼 있다.

불커 터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내 분쟁 기간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그 공백을 급진적 이념 세력들이 채우게 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이 표적이 된다”며 “지금은 단순한 안보 차원을 넘어, 방글라데시 내 포괄적인 인권 위기를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CSI)의 조엘 벨드캄프(Joel Veldkamp)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최소 47건의 기독교 관련 시설(교회 포함)이 공격받았다”며 “지속적인 국제 모니터링과 유엔 인권기구의 사실조사단 파견”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도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종교적 소수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인권 보호 조치와 함께, 법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종교적 소수자 보호 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인권기구들은 피해자 구제와 실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도 논의 중이다. **신미쉘 기자**

아일랜드 정부, 아이티 쟁단에 납치된 선교사 석방 촉구



레나 허러티 선교사와 그녀가 돌봐 온 아이들의 모습. ©NPFS

지난 8월 3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랑스 인근 켄스코프(Kenscoff)에 위치한 생트엘렌(Sainte-Hélène) 고아원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아일랜드 국적의 제나 허러티(Gena Heraty) 선교사를 포함한 고아원 직원 7명과 3세 장애아동 1명을 납치했다.

허러티 선교사는 국제 아동복지단체 ‘우리의 작은 형제자매들’(Nos Petits Frères et Sœurs, 이하 NPFS) 소속으로, 30년 이상 아이티에서 고아와 장애아동을 돌보며 헌신해 온 인물이다. NPFS는 멕시코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형제들’(Nuestros Pequeños Hermanos, 이하 NPH) 네트워크의 아이티 지부로, 베려진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사역을 이어왔다.

그녀는 현지 사회와 아일랜드 교계에서 깊은 신뢰를 받아 왔으며, 이번 사건은 현지의 치안 불안과 쟁단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허러티 씨와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이티 당국과 국제사회가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정년초성경봉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3부예배(찬양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후 6:00
대학성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꾸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장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lder 코너
T. (213)386-2233

김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0:50
세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전세벽예배 오전 6:30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세벽기도회(화~금)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6:00
토요예배: 오후 11:00
EM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예배 오후 6:30
EM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育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영글학교(주) 오전 10:00
유아동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00

이황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育부 예배 오전 8:00

이홍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EM 대(정)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토요예배 오후 6:3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育부 예배 오전 8:00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팀 스콧 美 상원의원 “미국의 뿌리는 유대-기독교 가치”



THE WAY

▲팀 스콧 상원의원. ©CBS 방송화면 캡처

미국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전 대선 후보가 최근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대-기독교적 가치(Judeo-Christian values)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신간 ‘원 네이션 올웨이스 언더갓’(One Nation Always Under God: Profiles in Christian Courage)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대-기독교 가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에 존엄하다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자유와 도덕적 책임, 이웃 사랑, 범주주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지만 미국의 법률, 교육, 복지 시스템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비롯됐다”며 “이 뿌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한다”고 했다. 이어 “세속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지만, 그분은 미국의 DNA에서 지워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노예제 폐지 운동가 윌리엄 로

이윤준 기자

그렉 로리 목사, 젊은 남성 부흥 조짐 속 ‘복음 전도’ 촉구



그렉 로리 목사. ©Harvest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담임인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앙 열기를 언급하며, 목회자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리 목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페이스 포 워드 목회자 서밋’(Faith Forward Pastors Summit)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 각성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영적 갈망 현상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에인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베스트 크루세이드(Harvest Crusade)에 4만5천명이 운집해 소방 당국이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잠갔던 사례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1970년대 ‘예수 운동’(Jesus Movement)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갈망과 유사한 흐름이 최근 밀레니얼과 Z세대 남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가 더 현실적인 기독교인이었지만, 특히 젊은 남성들 가운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바나그룹(Barna Group)의 ‘2025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 2025)’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5년 Z세대 남성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15%포인트, 밀레니얼 남성은 19%포인트 증가했다. 로리 목사는 “평소에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성경 판매량 증가를 신앙 간증의 지표로 꼽았다.

로리 목사는 “성경을 사는 건 할머니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있다”며 “Z세대와 알파세대는 진리를 갈망하며, 희석된 복음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담은 ‘거친 진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서카나 북스캔(Circana BookSca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미국 내 성경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로리 목사는 “우리는 전도하거나, 아니면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며 “부흥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성도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마서 13장 12절을 인용하며 “우리 세대에 주어진 시간은 짧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 청년예배 오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gc.org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 1부예배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
GRC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장로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후 11:30 영어성난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714) 871-8320/www.okcrc.org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
증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성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화~토 5:00)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임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사명을 위임하는 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

“미국 교회 겨냥 적대 행위 400건 돌파… 총기 사건 급증”

미국 내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2024년 한 해 동안 400건 이상 기록됐으며, 특히 총기 관련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이하 FRC)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내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43개 주, 383개 교회에서 총 415건의 적대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은 기물 파손과 방화, 총기 위협, 폭탄 협박, 물리적 폭행 등 다양했다. 이는 2023년 기록된 485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18~2022년 연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FRC는 2018년 1월 이후 총 1,384건의 사건을 집계했다.

보고서는 “이들 사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 종교 예배 참석자와 특정 신앙을 표방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캘럽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로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범죄가 기독교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절도 등 재정적 목적, 또는 청소년의 단순한 장난인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겨냥한 사건도 존재하며, 이러한 범죄는 교회에 물질적·정신적·재정적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총기 관련 사건은 2023년 12건에서 2024년 28건으로 급증했다. 펜실베이니아

이미경 기자

헐크 호건, 신앙으로 마무리한 삶...

전 세계에 깊은 울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헐크 호건의 침례 모습. ©헐크 호건 SNS

미국 프로레슬링의 아이콘이자 대중 문화의 전설로 불렸던 헐크 호건이 지난 7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보도에 따르면, 호건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졌으며,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헐크 호건은 1980년대 세계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헐크매니아(Hulkamania)’ 열풍은 단순한 스포츠 팬덤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WWE 챔피언에 총 6회 등극했고, 1985년 WWE의 첫 레슬매니아에서 메인 이벤트로 나서며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다.

2005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는 2018년에도 다시 한 번 그 업적을 인정받아 재헌액됐으며, 영화 ‘록키 3’에서 ‘썬더립스(Thunderlips)’로 등장하는 등 레슬링을 넘어 할리우드에서도 활약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대중적 영향력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헐크 호건의 진짜 유산은 링 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보여준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며, “가장 힘든 순간마다 성경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혼과 가족 갈등, 약물 문제, 깊은 우울증까지 겹치며

삶의 바탕 끝에 섰던 그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진 신앙을 세상에 나눴다.

호건은 “나는 헐크 호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으며, 실제로 그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했고 간증 영상과 복음 전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말년의 그는 화려함보다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진한 울림을 남겼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팬들과 동료, 그리고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그를 기리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단지 레슬링 스타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호건은 두 자녀를 두었으며, 딸 브룩은 올해 1월 쌍둥이를 출산해 그에게 손주의 기쁨을 안기기도 했다. 그의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팬들 또한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되새기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헐크 호건은 링 위에서의 투지만큼이나, 인생의 무게 속에서 보여준 신앙의 중심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인물이다. 그의 고백과 삶은 단순한 스타의 전설을 넘어,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의 진실된 여정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부(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월요부(K-2) 오전 10:30 학급별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온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拉斯ベ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밀辱)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6-12)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EM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vl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교육부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임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48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e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후 5:30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인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치즈 오방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윈도우 틴팅으로 차에 이야기를 담다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 오픈기념 목회자 대상 20% 디스카운트

차량 틴팅이 단순한 기술 작업을 넘어서, 차주(車主)의 개성과 삶의 철학을 담아내는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LA 토랜스(Torrance) 지역에 위치한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Carmeleon Skin Window Tint)는 틴팅과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을 중심으로, 고객의 차량에 스토리와 감성을 입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Jay Kim 대표는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단순히 틴팅을 잘하는 샵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담은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오랜 시간 틴팅 현장에서 직접 작업해온 그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족과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샵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틴팅은 기본에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차량마다의 개성과 오너의 스타일, 기능적 필요를 고려해 맞춤형 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틴팅의 시작이자 매력이라고 밝혔다.

많은 고객들이 카멜레온 스킨의 작업에서 ‘장애인정신’을 느꼈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완벽은 없지만, 더 나은 완성을 지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차량과 유리 상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해 매 순간 집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 Jay Kim 대표. “차에 개성과 안심을 함께 담아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조했다. 그는 “결국 기술보다 태도가 더 큰 완성도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차량을 맡기는 순간부터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에도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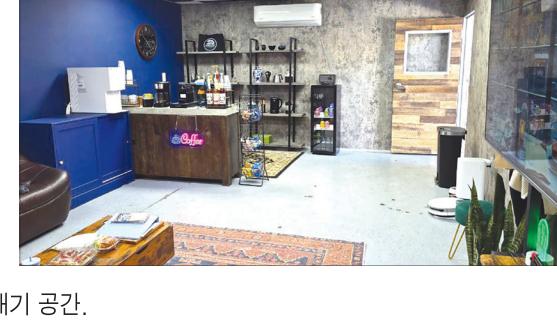
Jay Kim 대표는 “차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함께 맡는 일”이라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분 좋게 쉴 수 있도록 향, 음악, 커피, 간식 하나까지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틴팅과 PPF 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 내외관에 개성과 감각을 더하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누구나 자기 차에 스토리를 담고 싶은 순간이 있다

Jay Kim 대표는 “누구나 자기 차에 스토리를 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며 “그 감성을 기술로 구현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다. 차량에 색을 입히는 기술 너머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카멜레온 스킨 윈도우 틴트는 오늘도 고객의 차와 마음에 정성을 더하는 ‘작은 공방’이자 예술 공간’으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주소: 1717 Torrance Blvd Unit #B, Torrance, CA 90501 전화: (310) 935-1245



카페 수준의 커피바와 간식, 안락한 소파가 마련된 고객 대기 공간.

교회 단신

▶ 제4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

제4차 '3050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8월 20일(수)까지 오전 5시 30분(토 오전 6시)에 진행한다.

일시: 7/28(월) ~ 8/20(수)

장소: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 ▶충청향우회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남가주 충청향우회(회장 장충룡)가 '한국 가곡의 밤' 음악회를 16일(토) 오후 6시 나성한인교회(2241 N. Eastern Ave, LA 본당)에서 개최한다.

▶ 3050 목회자 세미나 8/21

8월 21일(목) 오전 10시 은혜

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차세

대 목회자 및 부교역자를 대상

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기홍

목사, 강준민 목사, 김종국 목사(에반겔리아 대학 총장), 이상명 목사(CPU 총장)가 강사로 선다.

▶ ANC 온누리 교회, 한 여름밤

의 금요워십

8/15 이진형 목사 '고통에도 뜻

이 있다?'

8/22 야외예배, 김태형 목사, '공

동체, 필수인가 선택인가?'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끌어안은 고통이 진주가 됩니다!

히 고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육의 고난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은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육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육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당한 고난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은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진정한 깊이는 풀리지 않은 것들 속에서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내게 생각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끝났을까? 왜 나는 그 토록 아픈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토록 싫어할까? 왜 어떤 문제는 그토록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어려움이 연속되는 것일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인생이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신비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단이 깊은 삶입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호함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한 때 저는 선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절이 들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한 선이 바뀌

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가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다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민자로 남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은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약을 복용하는 숫자도 늘어납니다. 병원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문제에 직면하면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 성숙해집니다.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킨 것은 고통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인생의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문제 속에서 여전히 평강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해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을 보류합니다. 기쁨도 보류합니다. 삶의 소중한 기회마저 놓쳐 버립니다.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그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은 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핑계로 그가 땅에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도 전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지속적으로 일꾼을 양육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총의 도구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고후 12:7-10). 조개가 상처를 끌어안을 때 그에 찾아온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경험한 역설적 축복입니다. 문제를 밀어내면, 기적 또한 함께 물러갑니다.

깊은 신앙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질문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는 정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사랑함으로 더 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할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찌 크신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는 끌어안고 살아내십시오. 어느 정도의 상처는 끌어안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끌어안은 상처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진주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끌어안은 고통이 진주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끌어안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월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진유철 칼럼

들보와 티, 악과 덜한 악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을 사용하고 있소?’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안다는 거요?’ 네, 그것은 간단하지요. 1파운드짜리 뺨의 무게와 같게 만듭니다.’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뺨은 어디에서 사오는 거요?’라고 하자 그 농장주인은 고소인을 가리키며 ‘우리는 늘 저 제빵업자한테서 사다 먹습니다.’ 결국 버터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제빵업자의 뺨이 줄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문제의 시작이 사실은 나인데, 자꾸 남의 잘못을 비판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계으로기 때문이고, 만일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너무 많은 일에 놀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한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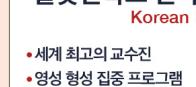
고 한다. 만일 그가 내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많은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하고, 내가 친절하면 나의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티와 들보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즉 작은 결점을 말하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칸과 칸 사이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큰 나무입니다. 크기로는 들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러나 둘 다 눈에 있다면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는 작은 티를 보는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자기 눈 속의 더 큰 들보는 못 보면서 상대방의 작은 티는 빼겠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5)

사회비평가요 정치사상가로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는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죄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 완전한 선은 없다. 다만 ‘악’이 있고, 그것보다는 약간 ‘덜한 악’이 있을 뿐이다. 인간 사회는 선과 악, good and evil, 둘이 싸우는 세계가 아니고, evil and lesser evil, 즉 악과 그보다 조금 덜한 악이 있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악evil은 ‘들보’요, 덜한 악lesser evil은 ‘티’입니다. 그런데 ‘덜한 악’이 자기를 ‘선’으로 착각하여 남을 비판하게 되면 세상은 온통 악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남의 티가 보이는 그 때,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의 들보도 빼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므로 나와 주변에 아름다운 선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살롱!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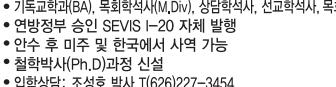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입학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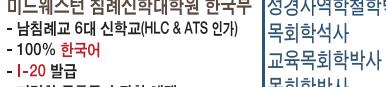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훈 박사 Tel(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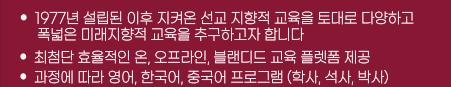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 설립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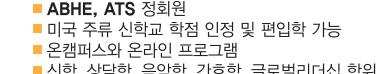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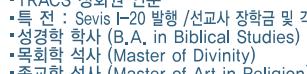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학, 비영리단체사업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전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정학제도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석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믄!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LOVING
주관 FORSHIP



■ 김영한 칼럼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I)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끝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의 독특성은 그의 대속의 죽으심에만 있지 않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에 있다. 그가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속(代贖)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7).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빛 속에서 그의 죽으심은 다시 조명되어,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사(四)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은 가장 명료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I. 돌 무덤에 안장(安葬)됨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다. 저물었을 때에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벨라도에게 예수의 시신(屍身)을 달라고 요구한다(마 27:59). 유대의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미쉬나에서는 시신(屍身)은 매장할 것을 요구한다. 설사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했다. 로마 총독부는 그런 매장을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죄인의 시신은 가족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죄인은 가족 묘지에 안치될 수도 없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하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막 15:4)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태에 따르면 그는 예수를 추종한 제자였다: “저물었을 때에 아

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마 27:57). 당시 치욕의 극형을 당한 자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제자됨의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서 당시 사회에서는 안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이다.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굽려 무덤 문에 놓는다(마 27:60).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익명적 제자임을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벨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벨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요 19:38). 복음서 저자 요한은 밤에 예수의 사역 초기에 그를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배우고 돌아갔던 니고데모의 조문(弔問)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요 19:39). 백근은 33킬로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서 망자(亡者)에 대한 탁월한 명예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난 그날 밤 중생을 경험했고, 유대 관원으로서 예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는 돌 무덤에 안장되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끝났다. 제자들은 자기 일상으로 되돌아 갔다.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운동은 그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여성 제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았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매장 후 7일에 걸쳐 시신을 물로 씻고 헝겊으로 싸매고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죽은 자 애도(哀悼)를 위한 방편이었다. 여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무덤으로 달려 갔다. 안식일로 인해 장례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후 첫 날 여인들은 시신에 기름을 뿌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사흘 후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다. <계속>

■ 조성래 칼럼

막힌 하수도, 막힌 신앙



조 성 래 목사
한국재난구호 이사장

어느 날 세면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배수 트랩’을 분해해 보니,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 있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하니, 세면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수도나 변기가 막히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릅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불러야 하고, 큰 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막히면 관계가 단절되고, 삶에 심각한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막히면 마치 하수관이 막힌 것처럼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클럽에서의 소통 단절): 필자는 매일 아침 운동을 위해 클럽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럽의 회장과 총무 사이에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임시 월례회를 소집해 총무를 해임했고,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과 회장 간에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재를 시도했지만, 회장은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싸움닭 같은 성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경쟁심, 공격적인 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성격을 동물에 빗댄 것으로, 매우 생생한 인상을 줍니다. 싸움닭 같은 성격이란? 이러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말과 행동이 직설적이며 거칠이 없다. 자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비판이나 경쟁 상황에서 방어보다는 반격을 택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주장한다. 논쟁에서 지기 싫어하며, 사소한 일도 자존심 문제로 확대한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부족하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속한 단체 역시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로 보는 싸움닭의 행동, 회의 중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죠”라고 맞서며 방어합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불타는 승부욕으로 반드시 이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싸움닭 같은 성격은 강한 자존심, 즉각적인 반응,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향이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때때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 직접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이다.”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후, 단지 목회자의 말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거나 실망한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왜 그때 목사님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vs 자존감 “자존심(自尊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로 사용됩니다.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지나치면 관계에 벽이 생기고, 부족하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화목하게 하는 삶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끊기면 삶은 마치 지옥처럼 변합니다. 지난 6월, 필자는 목회자 세미나(링카)에서 한 사모님의 은혜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남편 목사님이 외출할 때 단 한 번도 어디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

고, 가끔은 며칠씩 연락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에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미나 이후 그 목사님의 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딸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경로로 알아본 끝에 부모님을 세미나에 참여시켰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의 사명, 하수도처럼 영적 관계가 막히면 신앙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고린도 후서 5:18)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고린도 후서 6:3)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단지 교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실천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3~16)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힙

장점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8월이면, 귓가를 쟁쟁하게 울리던 고향땅 싱그러운 매미울음소리도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고.

장마비가 시원하게 내리던 고국땅도 아득히 멀기만한데.

한가지 잊지 않아야 할 우리 민족의 최고의 날! 광복절이 어느 듯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이역만리 이국땅에 있어도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80주년 고국의 광복절을 함께 축하하고자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곳 이스턴 동산 나성 한인교회 본당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정다운 노래 고향의 노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가곡의 밤으로 우리 광복 80주년 음악회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자랑스런 성악가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귀한자리를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하신분중에 80분을 선정해서 귀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가곡의 밤”



일시: 2025년 8월 16일 (토) 오후 6시

장소: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문의: 213-255-6453 / 213-503-2526

부회장 황인수

33대 회장 장충룡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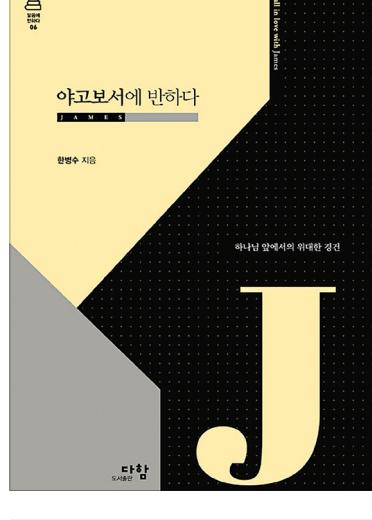
남가주 충청향우회
Choong Chung Society of Southern CA

OC 충청향우회
Choong Chung Society of Orange County

협력단체 : 나성한인교회 / 남가주호남향우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 대한민국 월남참전 미남가주회 /
사우스베이 한인노인회 / 송제호 탁구교실 / 라디오서울 / 한국일보 / H 매거진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경건

짧고 도전적인 경건의 지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



야고보서에 반하다

한병수 | 다함 | 384쪽 | 28,000원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경건의 더 실질적인 측면, 즉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에 이르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논한다

1세기의 열두 지파를 넘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현실적인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는 야고보의 서신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최악의 시대의 위협이 오더라도 신자가 자제롭게 인내하며 온전한 경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다

야고보서는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정경성과 저자에 대한 오해가 늘 꼬리말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종교 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야고보서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런 루터의 평가는 이신칭의 중심적인 기독론과 무관하지 않다.

야고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두 번만 거명된다 해서, 기독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비록 기독론에 관한 표현이 다른 성경에 비해 적다 해서, 저자가 기독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병수 교수의 '말씀에 반하다' 여섯 번째 시리즈인 『야고보서에 반하다』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원어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했다. 또 고대 교부들의 해석을 첨가해, 역사적 해석 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야고보서 저자와 배경

야고보서 저자는 영어로 '제임스', 헬라어로 '아코보스'라 불린다. 저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즉 '야곱'이다. 대부분 성경 번역에서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원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 그중 두 명은 예수의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서신은 예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야고보와 관련된 정보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로 부상한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 예루살렘에 지속된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야고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의 이중

취하여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로 알려졌다.

야고보서의 목적과 내용

야고보서는 다섯 장의 짧은 서신 서이지만,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삶의 도전과 실천을 강조하고자 했다. 야고보서는 바울서신의 경우처럼 한 지역교회의 특정 문제점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용하고자 한다.

즉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율법에 나타난 다양한 지혜의 격언(잠언 1-9장)을 인용해 적용하고 있다.

야고보서에는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들이 많이 등장하며, 짧고 도전적인 내용을 가진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즉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예수께서 요약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르침의 핵심 주제

야고보서에는 기억해야 할 두 가르침이 등장한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야고보는 이런 행동이 예수가 강조하신 사랑과는 반대 된다고 강조한다. 둘째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런 사람의 믿음이 곧 죽은 믿음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근본과 행하는 것의 일치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말과 부자를 향한 경고

야고보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의 이중

성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야고보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강조하셨던 화평을 강조한다.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부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부로 인해 교만해진 부자를 향해, 그들이 가진 재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며 예수께서 재림 하심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런 소망은 곧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건의 삶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함께 인생에는 고난이 많음을 밝히고 있다. 야고보는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말한다. 야고보서에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 반복된다. 히브

리어와 헬라어에서의 의미는 온전함을 가리키며, 우리의 행동이 예수께 받은 가치와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는 우리 삶이 모순 가득한 인격 가운데 살아감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환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만일 가난이 우리 삶을 시련으로 몰아간다면, 시련은 하나님 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삶이 참된 경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야고보를 읽어가면서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경건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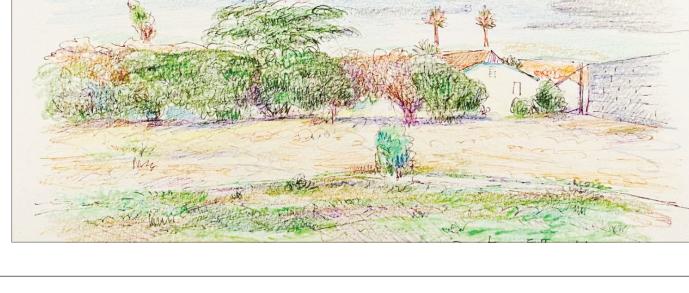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기다리는 자들에겐이나 구하는 영혼들

에게 이어호와는 선하시도다

예언서미아이스아가 3:25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se hope is in him, to the one who seeks him. LAMENTATIONS 3:25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박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케이팝 데몬 헌터스> (1)

K-POP 통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의 무속 미화, 무엇이 문제인가?

무속, 국악, 한국 대중음악
그리고 K-POP의 커넥션
시나위, 넋두리, 황천길, 미궁 등
무속의 흔적, 대중음악 곳곳 남아
공연 행태마저 굿판과 연결하기도
싸이, 굿판 재현 대표 아티스트?
페창, 단오굿·별신굿 자주 목격돼

며 경원시했다. 그들은 국악을 대체하기 위해 서구 클래식과 가곡, 그리고 찬송가 유입에 힘썼다. 여기에 더해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에 일본 ‘엔카’가 유입되고 트로트가 빠르게 발전해, 이내 대중음악 주류로 자리잡았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서구 음악 유입, 그리고 엔카 유입에 의해 촉진된 트로트 발전이라는 두 요인 때문에 한반도 민중은 무속과 깊은 연관을 갖던 전통 국악을 일상에서 더 이상 향유하지 않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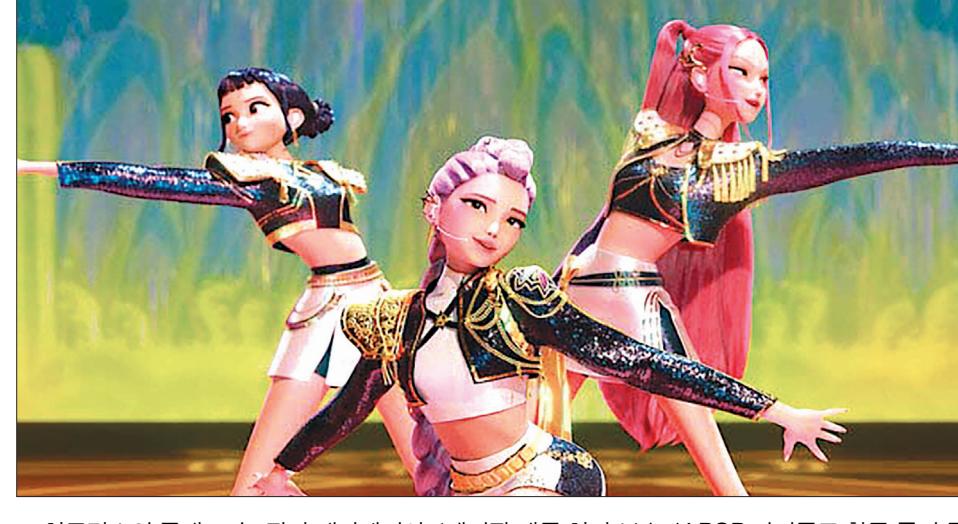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의 흔적은 198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시나위(그룹명, 국내 대표 록밴드 가운데 하나), 넋두리(가수 김현식 대표곡), 황천길(뮤지션 김수철 국악앨범 대표곡) 같은 무속 음악 개념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자주 사용됐고, 국악 작곡가 황병기의 ‘미궁’은 아예 대놓고 신접한 소리를 곡에 포함시켰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현재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된 K-POP 공연 행태마저 무속의 굿판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한다. 일례로 저명한 한국 구비문학 연구자 신동흔(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현대 대중음악 콘서트에서 전통 굿문화의 발현 양상>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한다.

그는 관객들이 가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춤추며 뛰어노는 한국의 군무 중심 콘서트 문화가 무당의 신명난 춤에 관전자들이 적극 호응하는 굿판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해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굿판에서 벌어진 군무를 재현하는 대표적인 K-POP 아티스트로 ‘강남스타일’을 부른 싸이를 지목한다. 그리고 한국 K-POP ‘페창’ 역시 세습무(世襲巫)가 펼치던 강릉 단오굿이나 동해안 별신굿 등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라고 설명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방금 거론한 무속과 현대 K-POP 사이 연관성



▲헌트릭스의 무대 모습. 장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POP 아이돌로 활동 중인 무당 후계자들의 퇴마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삼고 있다. ©넷플릭스

을 주요 소재로 삼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다. 한국 제작사가 아닌 미국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됐다.

전체적인 시청자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참신한 소재, 출중한 K-POP 음악, 뚜렷한 캐릭터성, 화려하고 흥미로운 연출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K-POP 프로듀서와 작곡가, 아이돌 가수를 대거 기용, 각종 K-POP 분위기를 제대로 재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작품 자체의 서사나 캐릭터 구축도 훌륭하지만, 주연들이 펼치는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 만으로도 대단한 매력을 갖는 작품이라는 평이 대세를 이룬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케데헌> 주인공 헌트릭스(HUNTRIX)와 악역 사자 보이즈(SAJA Boys)의 정체다. 세 명의 여성 K-POP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강력한 무당 가문 후계자들로, 악령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일을 주로 맡고 있다. 반면 ‘빌런’ 역할을 맡은 사자 보이즈는 악령들의 군주인 귀마의 부하로, 헌트릭스를 무너뜨리고 인간들 모두의 혼을 빼앗아 삼키려는 계략을 실행한다.

여기서 귀마란 조선 순조 대에 발표된 고전소설 ‘삼한습유(三韓拾遺)’에 등장하는 귀마왕을 모티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귀마왕은 일만 악의 근원으로 성경에 빗대자면 마귀와 같은 역할을 맡는 캐릭터다.

헌트릭스는 이런 악의 근원이자 군주인 귀마를 막아내기 위해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악령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당과 무속 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니, 단지 무속

의 미화를 넘어, K-POP을 매개삼아 무속을 매력적인 한국 문화로 포장해 세계화하는 작품이다. 2024년작 <파묘>가 그랬던 것처럼, 무속이야말로 한반도 민중의 삶을 지키는 전통적 종교 문화라는 메시지가 <케데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작품 제작을 미국 제작사 소니 픽처스가 맡다 보니, 무속의 디테일에 있어 각본가 및 연출가의 몫이 이해가 엿보인다. 작품에 나오는 무당은 사실상 접두에 특화된 ‘샤면’보다는 전세계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퇴마사’의 이미지에 맞게 각색됐다.

그런 면에서 <케데헌>의 헌트릭스는 한국의 무당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 <헬싱>이나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퇴마사의 모습에 가깝다.

이처럼 <케데헌>은 무속을 묘사하는 데서 여리 각색을 거쳤다. 하지만 이 작품이 무속을 한국 대표적 전통 종교문화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K-POP의 강점 중 하나가 무속과의 연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의 종교적·문화적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케데헌>의 설정과 서사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지점이다.

무속이 한국의 대표적 전통 종교문화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무당의 접술과 인생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한국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에 무속의 잔재들이 남아서 한국인 일상적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속이 우리 민족 전체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는 고등종교의 속성을 갖고 있는 듯 소개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무속은 원래 인류 보편적 도덕성이거나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원시종교로서, 씨족이나 마을 단위로 경외하고 섬기던 신들에 대한 다신교적 숭배와 제의 행태의 총체일 뿐이다.



▲무속은 원래 인류보편적 도덕성이거나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원시종교로서 씨족이나 마을 단위로 경외하고 섬기던 신들에 대한 다신교적 숭배와 제의 행태의 총체일 뿐이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물류 1-877-580-2424 샌디에(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이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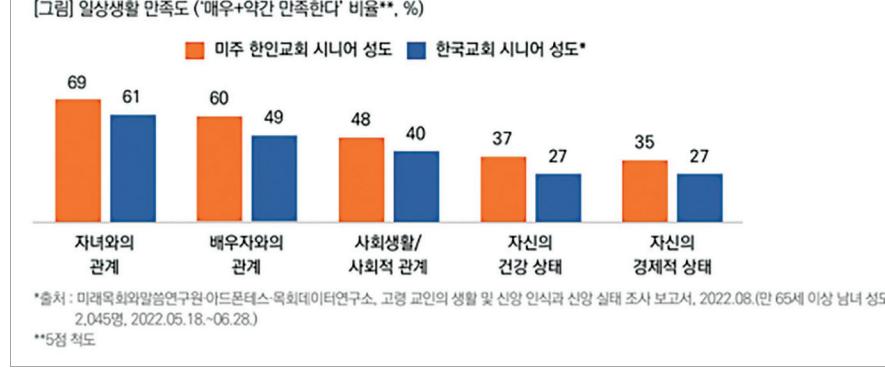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한국 또래보다 일상생활 만족도 높아

목회데이터연구소, 美 대학과 함께 '한인교회 시니어' 조사

미주 한인교회의 고령 교인들, 이른바 시니어들이 한국교회의 같은 연령대 교인들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미국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60세 이상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7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주요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는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생활 및 사회적 관계,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 등 일상생활 만족도 전반에서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보다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목데연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60%로, 한국 시니어(49%)보다 10%p 이상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했다. 한인교회 시니어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자녀와의 관계'(69%)였으며, 이어 '배우



©목회데이터연구소

자와의 관계', '사회생활/사회적 관계'(48%) 등의 순이었다.

한인교회 시니어들의 은퇴 후 '사역·선교 참여 의지'도 한국교회 시니어보다 높았다. 미국 시니어 성도는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에 64%가 '그렇다'고 응답해, 한국 시니어(53%)보다 11%p나 높았다. 또 한 '해외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한국 시니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또 미국 시니어 성도는 한국 시니어보다 신양성장에 있어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신양 성장에 도움을 받은 요인을 물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시니어 모두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미국 시니어는 그 비율이 56%로 한국 시니어의 71%보다 낮았다.

아울러 목데연은 "80세 이상(68%)과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66%)에서 '예배·담임목사 설교' 응답률이 상대

적으로 높아, 고령층과 독거노인 일수록 담임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중심으로 신양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한인교회 고령 교인들

이 교회 내 세대 간 교류에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한국교회 시니어와 비슷한 결과이다.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젊은이와 시니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고 했다.

또한 "시니어 사역을 단순 돌봄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시니어들의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발굴하여 사역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니어가 자발적·자기주도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영 기자

무신론자와 ChatGPT의 토론, '하나님 존재'로 귀결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
©기독일보 DB

것이다. 문제의 무신론자는 '코스믹 스케프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알렉스 오코너(Alex O'Connor)로, 팟캐스트 Within Reason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는 무신론자와 신자 모두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정확히 말하면, 알렉스는 '불가지론적 무신론자'인데, 이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모두 포함하는 입장이다. 불가지론적 무신론자는 초자연적 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존재가 원리적으로 알 수 없거나 현재 사실상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알렉스는 이제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 그는 이번 영상에서 '우연성(의존성) 논증(argument from contingency)'을 ChatGPT에 던져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했다.

우연성 논증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필연적 존재(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존재) 또는 우연적 존재(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는 존재) 중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이 우연적일 수는 없으므로, 모든 우연적 존재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원인이 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렉스는 ChatGPT에 먼저 '사실'과 '믿

음'을 구분하도록 하고, 영상에서 사용한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했다. ChatGPT의 대답은 정확했다.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했다는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설명의 연쇄는 필연적인 존재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우연적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와 신자 모두가 지적하듯, 우연적 사건들의 무한 회귀는 마이크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ChatGPT는 이렇게 말했다.

"순수하게 우연적 원인들의 무한 회귀는 궁극적인 인과적 힘의 근원을 결여한다는 생각은 우연성의 본질에 기반한 논리적 함의입니다. 모든 우연적 존재가 다른 것에 의해 존재 인과적 힘을 얻는데, 필연적 근원이 없다면 결국 그 연쇄를 유지할 인과적 힘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 결론은 단순히 인기 있는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한 우연성과 인과에 관한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ChatGPT는 허구를 지어낸 것이 아니

라,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과 논리를 따라 답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연쇄를 유지하는 인과적 힘'은 우주 자체이거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안되어 왔다. 알렉스는 다음으로 우주가 영원한지 질문했고, ChatGPT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작점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렉스는 다중우주(multiverse) 가능성

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쩌면 2012년 스티븐 호킹 70세 생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알렉산더 빌렌킨 박사의 '우주의 상태(State of the Universe)' 논문 때문일 수 있다. 빌렌킨은 강연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우주가 시작을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주나 다중우주 모두 시작이 있다면, 원인이 있으며 영원하지 않다. 이후 알렉스와 ChatGPT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알렉스: "우주 밖에 필연적 존재

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ChatGPT: "네. 우연성과 필연적 기초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확립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며, 시작이 있었던 우주 안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알렉스: "자신의 의지로 우주를 창조한 필연적 존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ChatGPT: "이러한 필연적이고 영원하며 의도적인 우주의 창조자를 지칭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름은 '하나님(God)'입니다."

알렉스: "그렇다면, ChatGPT, 우리가 이 존재에게 붙이는 가장 자연스럽고 명백한 이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ChatGPT: "우리가 논의한 논리적 추론과 사실적 전제에 따르면, 하나님이라 불리는 필연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합의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뒷받침됩니다."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401k 중에서 일부만 미리 옮기게 된다면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평소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희 61세이고 이제 3년 후면 아마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401k가 없었는데 18년 전부터 회사가 401k를 해줘서 저는 조금 많이 넣어서 현재 41만불 정도가 됐습니다.

문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은퇴가 가까워 지면 안전하면서도 이자 잘 받는 곳에 꼭 넣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401k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 보면서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어쩌면 내가 은퇴하는 날 내 401k가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신경을 쓰다 보니 매번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로 주식의 이자 만큼 자라는 그런데도 안떨어지는게 있으면 제 401k를 회사 나니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35만불 정도라도 좀 옮겨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옮겨놓을 때 어떤 플랜이 좋은지도 궁금한데 문선영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듣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면 앞으로

올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지요. 선

생님의 경우 3년 동안 앞으로 401k를

계속 부으실 생각이고, 그 안에서 또 돈은 주식에 의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투자에 넣으신

다면, 401k 중 35만불 정도는 주식시

장의 간접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접적인 투자가 바로 주식만큼

자라지만 내 돈이 직접 주식에 투자

되지 않고 인덱스 방식의 이자로 절

대 떨어지지 않는 안전 자산의 이익

이터로 둘로버, 옮겨놓게 되는 거지

요. 그러면 현재 자산도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셈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

도 35만불은 평균이자 주식만큼은 자

라지만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안전한 인덱스

어뉴이터로 옮긴다고 해도 과연 어떤

어뉴이터로 옮긴다고 해도

내 은퇴자금 401k가 허물어지지 않

상품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

다. 첫째, 선생님의 정확한 은퇴 시기

입니다. 둘째 선생님의 필요하신 은

퇴 자금과 401K 이외의 다른 은퇴 인

컴 소스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셋째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계

획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선생님

의 필요하신 은퇴 자금은 은퇴시기와,

소셜 연금을 언제 부터 찾아 쓰실 지,

얼마나 찾아 쓰실지, 부동산 렌탈 인

컴과 같은 가정내 다른 인컴은 발생

하는지 등등에 따라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은퇴는 3년 후에 하시지만 실제로

401k에서 인출을 하는 것은 70세가

넘어서 해야겠다고 한다면 플랜을 거

기해 맞게 해야 하겠죠. 선생님이 다

른 은퇴 플랜들이 있고 은퇴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 401k에서는 굳이 세

금을 많이 내면서 찾고 싶지 않아도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험/신뢰/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운송연금/리테이너/401K 블로버/학자금/급세풀온/상속

Youtuber 문선영의 머니토크

예비부모 대비 금융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유로 정부에서 바꿔놓고, 고집하고, 물리고, 보존하는데

는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놓고 유익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선영 #운송연금 #리테이너 #401K #블로버 #학자금 #급세풀온 #상속 #생명보험 #운송연금 #리테이너 #401K #블로버 #학자금 #급세풀온 #상속

리테이너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수석의 재정전문가

리테이너 문선영은 미국 최고의 재정전문가입니다.

미국 최고의 재정전문가입니다.</

크렌셔장로교회 창립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크렌셔장로교회가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굳건한 성장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한현종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00
EM 주일 예배 : 오전 10:30

시무장로 장립 : 김유청, 백요한

시무장로 추대 : 남형웅



■ **일시** : 2025년 8월 24일(주일) 오전 10:30

■ **장소**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 **문의** : 한현종 담임목사 (213-407-1600)
김제임스 장로 (805-663-9272)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